

다시 찾은 일상에 웃음꽃... “빠른 사회 안정을”

‘尹 파면’... 광주·전남 첫 주말

지역 변화·골목상권 ‘활기’
“민생경제 회복에 힘 모아야”
축제장 나들이객 발길에 복적
“화합·포용하는 사회 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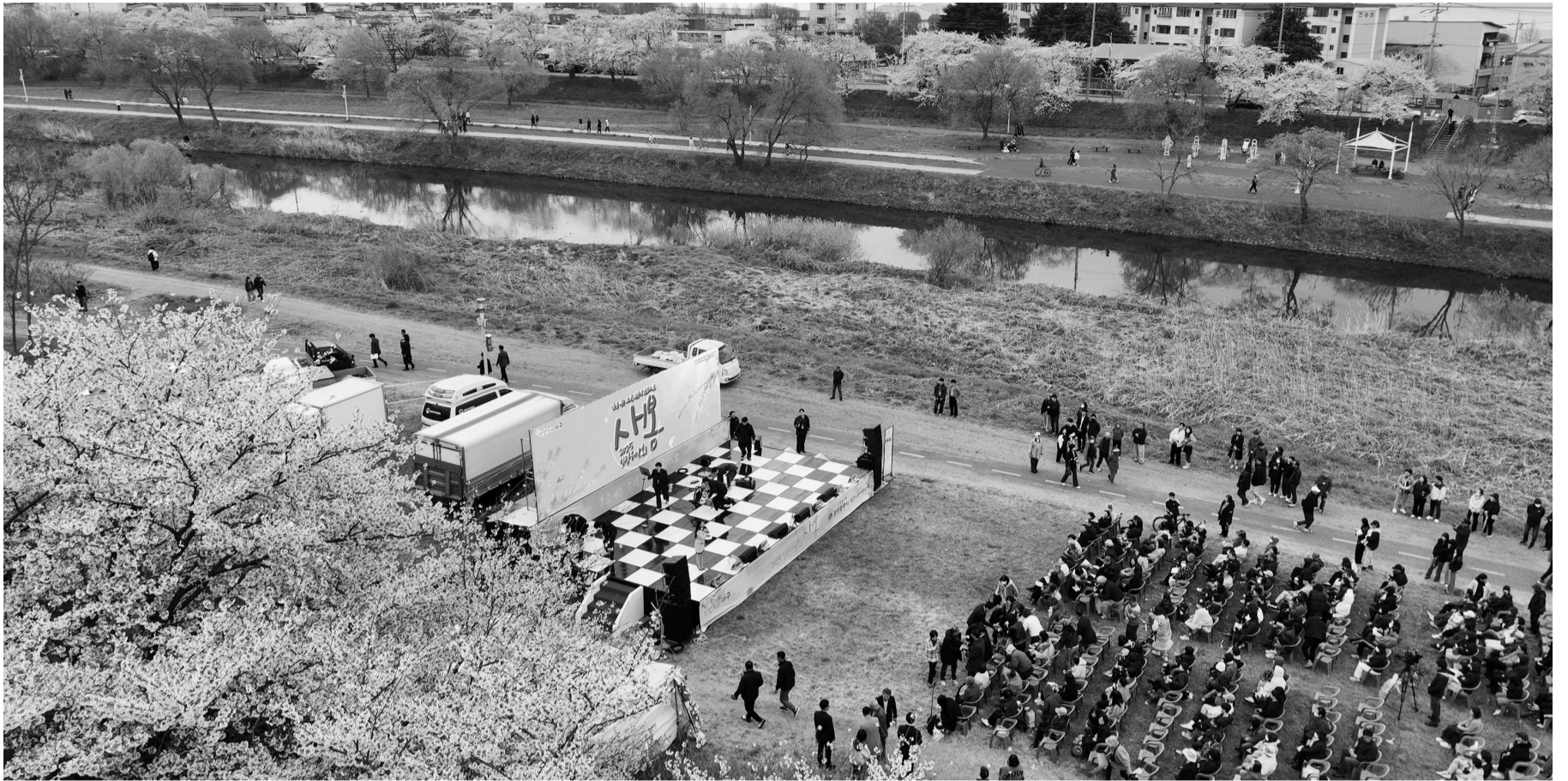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뒤 맞은 첫 주말동안 광주·전남의 화두는 단연 ‘변화’와 ‘희망’이었다. 지역 곳곳에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환호는 물론, 무너졌던 민생과 정치에 대한 기대, 다시 찾아온 일상에 대한 소망까지 어우러지며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이후 광주·전남 지역의 주요 변화는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주점에 모여든 손님들은 문형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주문 선고 영상을 여러 차례 돌려보며 축배를 나눴다.

이상호(26)씨는 “파면 결정을 기념해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선고가 계속 늦어져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렇게 올바른 결과가 나와 정말 다행”이라며 “계엄사태가 남긴 사회적 충격이 너무 컸다. 이제는 민생경제가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우(25)씨도 “역사적인 순간을 생방송으로 지켜보면서 수십년간 쌓아 올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을 체감했다”며 “이번 탄핵정국을 계기로 정치인들이 각성하고, 민생회복과 사회안정에 더욱 힘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 침체했던 동네 골목상권에도 오랜만에 별이 들었다. 자리를 가득 채운 손님들 덕에 식당과 각종 매장에는 모



주말인 지난 5일 광주시민들이 벚꽃이 활짝 핀 광주 서구 광암교에서 동천교 사이 광주천변에서 힐링음악회 ‘새봄’을 즐기고 있다. 광주 서구청은 윤석열 파면과 함께 경제·사회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힐링콘서트를 마련했다. 김양배 기자

처럼 웃음소리가 흘렀고, 상인들 역시 한결 밝은 얼굴이었다.

봉선동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유호원(52)씨는 “불경기로 인해 매장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제는 서서히 경기가 살아나고, 중산층과 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때마침 만개한 벚꽃과 따스한 봄기운에 지역 곳곳의 축제장에도 나들이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맞이한 봄날의 정취를 만끽하고,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면서 저마다의 소망을 내

비쳤다. 6일 서구 광주천변 일원에서 열린 새봄 힐링음악회를 찾은 박선형(27)씨는 “봄을 만끽하고자 벚꽃이 활짝 핀 주변을 찾았다. 음악을 감상하고,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며 “계엄사태와 탄핵정국을 통해 정치가 시민들의 일상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는 시민을 위협하는 위험적 계엄령이 발발할 수 없는 사회가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휴일에도 도서관을 찾은 청년들은 경기회복과 취업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는 바람

을 내비쳤다. 취업 준비생 정지우(25)씨는 “최근 몇 년간 불경기가 이어지며, 지역 청년들의 취업난도 심화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새로운 지도자는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를 더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가족들과 마주앉은 주말 ‘밥상머리’ 위로도 자연스럽게 ‘대통령 파면’ 이야기가 오르며 함박웃음이 이어졌다. 안남식(67)씨는 “친척들과의 저녁식사 대화 주제가 온통 현재의 파면 선고 이야기였다. 윤 전 대통령이 가족들을 모두

통합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줬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윤 전 대통령을 더는 보지 않아도 돼 가족 모두가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이었다”고 귀띔했다. 김대수(60)씨도 “민주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힌 지도자의 비참한 말로에 통쾌한 마음이 들었다. 다음 대선에는 국민을 서로 통합하고 아우를 줄 아는 포용의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나왔으면 한다”며 “국민 모두가 화합해 더욱 평화롭고 부강한 사회와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준명·이정준·정승우 기자

“시민의 승리·민주주의의 승리 이제는 국정 안정·경제 회복”

광주·전남 각계 환영 메시지

강 시장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김 지사 “민생·경제 활성화에 역량”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것과 관련해 광주·전남지역 정치권과 교육계, 시민사회, 경제계 등 각계각층에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시민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입을 모으며, 조속한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을 촉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4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시민들과 현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본 후 “위대한 광주시민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헌법을 수호하고 극우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통해 더 많은 민주주의자를 키우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파면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자 전남도민의 승리”라며 “혼란의 시대가 끝난 만큼,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구청장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로 인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로 세운 역사적인 날”이라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의회와 5개 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의 겨울이 끝났고 민주주의의 봄이 왔다”며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전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진보당·정의당 의원 59명도 성명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내란 동조·방조 세력의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이번 현재의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고,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현재의 판결을 반겼다. ‘윤석열정권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발표된 4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시민사회 단체와 시민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뻐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자회견을 통해 “공권력의 폭력과 불안의 밤을 이겨낸 시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선언했다. 5·18단체들도 일제히 지지 입장을 밝혔다. 5·18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헌정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대통령의 몰락이자 국민이 직접 쓴 심판의 역사”라며 “내란을 옹호한 ‘법비’(法匪)와 검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노동계는 ‘노동 존중’ 가치를 담은 헌법 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동 광주본

부는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렸다는 5월 정신의 승리”라며 “민주주의를 전진시키고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해 낡은 87년 헌법을 바꿔야 한다. 대선 출마 후보들은 ‘불평등과 차별이 없고 노동을 존중하며 내란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외친 광장의 요구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경제계는 조속한 정국 안정과 경제 회복을 희망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는 국가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면서 “정치적

변화 속에서도 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경영자총회도 “이번 판결로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속히 안정되고, 여야가 함께 우리 경제를 덮고 있는 불확실성을 조속히 견어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치러질 대선을 대비해 광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맞춤형 대선공약 과제를 발굴하고 차기 국정과제에 반영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정성아 기자